

2016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6. 9. 9(금)14:00 제1회의실]

□ 회의안건

- 1) 2016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2) 기채 승인 신청(안) 심의
- 3) 기금 용도 변경(안) 심의

기 획 처

2016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	2016.8.30
재직위원 정수	11명

1. 일시 : 2016. 9. 9(금) 14:00

2. 장소 : 제 1 회의실

3. 참석인원

- 위원장 : 이후천
- 참석위원 : 고재모, 이창호, 황대연, 박명래, 정민철, 남상빈, 박재홍(8명)
- 결석위원 : 이천길, 김용희, 허종우(3명)

4. 회의안건

- 1) 2016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2) 기채 승인 신청(안) 심의
- 3) 기금 용도 변경(안) 심의

5. 회의내용

이후천위원장 : 전체 위원 중 8명 참석, 3명 불참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성원 되었기에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회함.

회의 안건은 2016 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심의, 기채 승인 신청(안) 심의, 기금 용도 변경(안) 심의임.

안건과 관련하여 고재모 기획처장의 설명을 요청함.

고재모 위원 : 세 가지 안건은 2016 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과 관련하여 상호 관련된 내용임으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는 첫째, 산림청 소유의 부지 구입에 따른 사

학진흥기금 융자신청으로 인한 예산 변동 및 이에 따른 이자 지급액 반영에 따른 것임.

부지매입자금 62억원 중 50억은 사학진흥기금의 융자로 충당하고 12억은 기금을 사용하여 구입하고자 함.

둘째, 장학기금 20억원 인출사용에 따른 교내장학금 및 인건비 각 계정별 계수 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예비비 배정 내용의 변동이 있기에 추가 경정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차 추경예산의 수입 및 지출예산은 각각 560억 44백만원이며, 2차 추경예산(안)의 수입, 지출예산은 각각 630억 44백만원으로 70억이 증액되었음.

이는 부지 매입에 따른 융자신청금액 50억원을 수입 및 지출에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장학기금 20억원 인출 및 집행에 따른 계수 조정에 따른 것임.

산림청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50억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융자 탈락시에는 전체 매입금액 62억을 기금에서 인출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기존 기금인출 62억원 편성을 유지시킴.

융자 배정에 따른 사학진흥기금 이자 990만원은 건축물관리비에서 삭감하여 배정하였음.

다음은 예비비 배정내역 및 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편성 승인금액은 총 16억 9.7천원임.

교내장학금 5억원 및 기타 예비비 배정 확정 금액은 5억 7천이며, 본예산 시 부족하게 편성했던 인건비(보수)에 4억 1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임. 따라서 2016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안) 예비비 편성액은 7억 2천여만 원임.

장학기금 20억을 비등록금회계 교내장학금에 배정하고 등록금회계 교내 학금에서 20억을 삭감하여 본예산 편성시 부족하게 편성하였던 인건비에 배정하고자 함. 따라서 예비비 배정액 4.1억을 포함하여 총 24.1억을 인건비 예산액에 배정할 예정임.

본예산 편성시 2주기 평가에 대비하고자 교육비환원율 145%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액 24.1억을 인건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 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대비표 및

추가경정 자금예산서를 참고바람.

이후천위원장 : 위 설명에 대한 질문바람.

남상빈 위원 : 올해 부족한 인건비가 24억이나 되는지 문의.

고재모 위원 : 본교 교직원 인건비가 연 225억 정도임. 그러나 본예산 편성시 201억을 배정하여 24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분 2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함.

남상빈 위원 : 내년 40주년 개교를 앞두고 지역 축제 및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행사 등은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임.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함.

특히 대동제는 본교 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좋은 기회의 장이라 생각됨. 그러나 그동안 대학 축제에 편성되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

개교 40주년 기념 대동제를 활성화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리라 기대됨.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박재홍 위원 : 오히려 대학평가를 달성하고자 힘겹게 노력해온 지친 공동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고재모 위원 : 예산 편성시 총학생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남상빈 위원 : 예비비 배정내역 중에서 여비교통비 20,000,000원 배정에 대해 설명바람.

홍창의 위원 : 작년에 총무과의 예산편성 오류로 지출하지 못했던 여비 교통비를 올해에 편성한 것임.

황대연 위원 : 협의회 및 구조개혁평가 관련 출장, 사업설명회 등으로 인하여 최근 교직원의 출장이 증가하고 있음.

박재홍 위원 : 본교 직원 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적고 계약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계약직의 경우 2년마다 교체되어 전문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황대연 위원 : 본교의 인사규정 제정시 학교 재정 상황을 많이 고려하였음.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우수한 정규직 직원의 채용을 늘려나가겠음.

홍창의 위원 : 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 정원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정규직은 인력탄력성이 떨어짐으로 30% 정도는 계약직으로 운영하며 인력탄력성을 유지하고자 함. 3주기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정확한 인력수급 산출이 가능해지면 정직 채용이 가능하리라 예상됨.

남상빈 위원 : 학생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을 일부 제기하고 있음.

정민철 위원 : 불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함. 학생과 직원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풀어나가야 할 상황은 학생과에서 중재를 하여야 함.

또한 불만이 있는 직원이 반드시 계약직 직원은 아닐 수도 있음. 위치와 직무에 따라 계약직이 필요할 수도 있음.

박명래 위원 :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확인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이 없도록 무조건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황대연 위원 : 직원들에 대한 불만은 직무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고재모 위원 :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처에서 학생들의 고충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신문고의 기능을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음.

이창호 위원 :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이후천위원장 : 이견 없으면 2016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동의 및 재청 바람.

남상빈, 박재홍 위원 : 동의함.

황대연 위원 : 재청함.

이후천위원장 : 모두 가하시면 “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 예

이후천 위원 :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

이후천위원장 : 기채 승인 신청(안)에 대한 동의 및 재청 바람

황대연 위원 : 동의함

박재홍 위원 : 재청함

이후천위원장 : 모두 가하시면 “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 예

이후천 위원 : 기채 승인 신청(안)이 가결되었음.

이후천 위원장 : 기금 용도 변경(안) 심의에 대한 동의 및 재청 바람

이창호 위원 : 동의함

박재홍 위원 : 재청함

이후천위원장 : 모두 가하시면 “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 예

이후천위원장 : 기금 용도 변경(안)이 가결되었음

(폐회시간 11:50)

위원장 이 후 천

위원 고 재 모 (인)

이 창 호 (인)

황 대 연 (인)

박 명 래 (인)

정 민 철 (인)

남 상 빙 (인)

박 재 흥 (인)